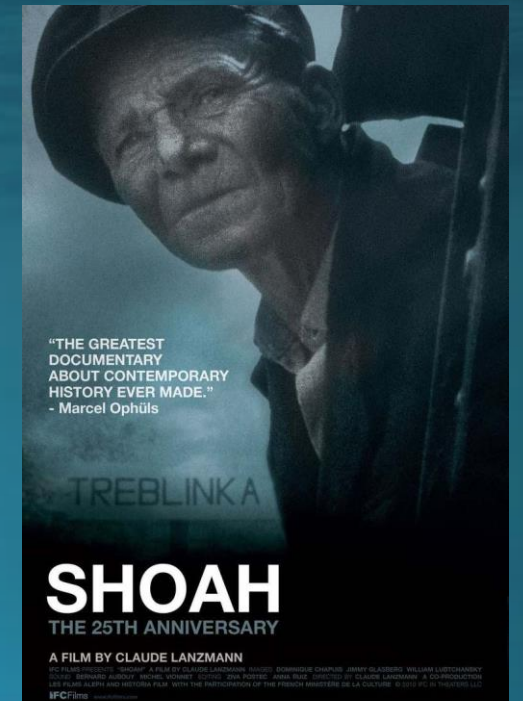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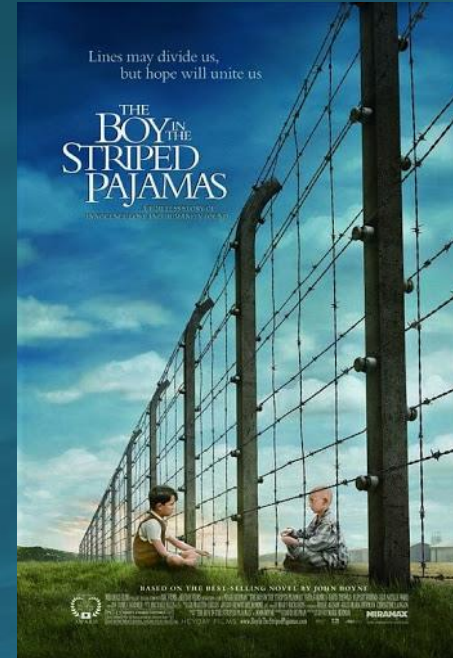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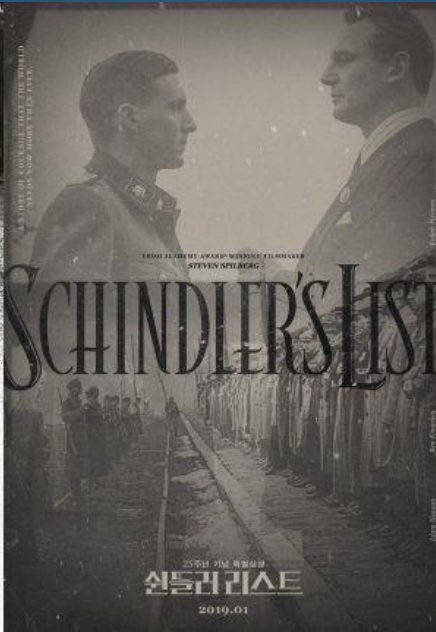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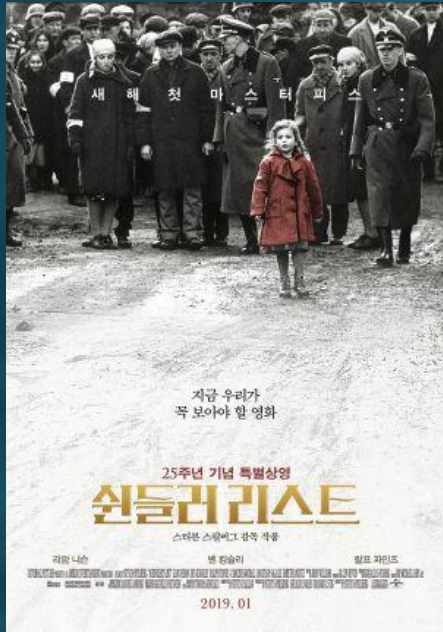


나는 과연 인간답게 살 수 있을까

한나 아렌트(Hannah Arendt)의

『예루살렘의 아이히만: 악의 평범성에 대한 보고서』

유대인 홀로코스트에 대한 대중적인 이해



유대인 홀로코스트에 대한 대중적인 이해



유대인 홀로코스트에 대한 대중적인 이해

“저는 제 인생에서 종종 예언자였고, 대개 비웃음의 대상이었습니다. 제가 권력을 쥐기 위해 투쟁하는 동안 유대인들은 ‘내가 언젠가는 독일의 리더가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우선적으로 유대인의 문제를 해결한다’는 저의 예언을 비웃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한때 독일에서 울려 퍼지던 그 웃음이 이제 이들의 숨통을 막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다시 한 번 예언자가 될 것입니다. 만일 유럽 안팎에서 세계 금융을 쥐고 있는 유대인들이 다시 한 번 여러 국가들을 또 다른 세계대전으로 내몬다면 그 결과는 세계의 볼셰비즘화가 아니고, 따라서 유대인의 승리가 아니며, 유럽에서의 유대인종의 파멸이 될 것입니다.”(아돌프 히틀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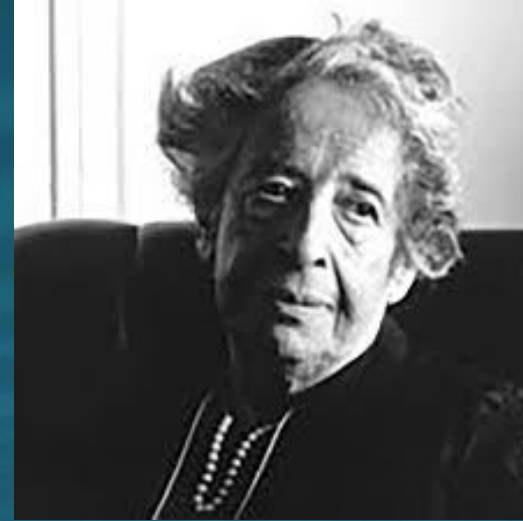




“그는 “잠시 후면,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시 만날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운명입니다. 독일 만세, 아르헨티나 만세, 오스트리아 만세. 나를 이들을 잊지 않을 것입니다”고 말했다. 죽음을 앞두고 그는 장례 연설에서 사용되는 상투어를 생각해 냈다. 교수대에서 그의 기억은 그에게 마지막 속임수를 부렸던 것이다. 그의 ‘정신은 의기양양하게 되었고’, 그는 이것이 자신의 장례식이라는 것을 잊고 있었다. 이는 마치 마지막 순간에 그가 인간의 연약함 속에서 이루어진 이 오랜 과정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교훈을 요약하고 있는 듯했다. 두려운 교훈, 즉 말과 사고를 허용하지 않는 악의 평범성(banality of evil)을.”(349쪽)

한나 아렌트(Hannah Arendt, 1906~1975)

- 정치이론가(정치철학자)
- 독일 출신의 유대인
- 하이데거, 야스퍼스 등에게서 사사
- 1933년 독일의 유대인 박해를 피해 프랑스로 이주
- 1941년에 미국으로 망명
- 1951년 『전체주의의 기원』 출간
- 1958년 『인간의 조건』 출간
- 1961년 아이히만 재판 참석 (-> 1963년에 출판)
- 『정신의 삶』을 마무리하던 중 1975년 12월에 심장마비로 사망



한나 아렌트의 집필 목적: 재판의 보고서

“내 책 자체는 슬프리만치 제한된 주제를 다루고 있다. 재판의 보고서는 재판 과정에서 다루어지거나 또는 정의를 위해 다루어졌던 문제들만을 논의할 수 있다. 만일 재판이 벌어진 국가의 전반적 상황이 재판 행위에 중요하다면 그것도 또한 설명되어야 했을 것이다. 따라서 이 책은 유대인에게 주어진 심각한 재난의 역사를 다루는 것이 아니고, 전체주의에 대한 설명이나 제3제국시절의 독일 국민의 역사를 다루는 것도 아니며, 끝으로 그러나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이 책은 악의 본질에 대한 이론적 연구도 아니다. 모든 재판의 초점은 개인의 역사, 특질과 고유성, 행동 유형, 상황 등 항상 독특성을 지닌, 삶과 피를 가진 한 인간인 피고의 인격에 있다. 이를 넘어서 모든 것, 즉 흩어져 살고 있는 유대 민족의 역사나 반유대주의의 역사, 독일 국민이나 다른 민족의 행위, 또는 당시의 이데올로기와 제3제국의 정부기구 등과 같은 것은 그것이 피고가 저지른 행위의 배경과 조건을 형성하는 한에서만 재판에 영향을 준다. 피고가 접촉하지 않은 모든 것, 또는 그에게 영향을 주지 않은 모든 것은 재판 과정에서 생략되어야 하며, 따라서 그에 대한 보고에서도 생략되어야 한다.”(389쪽)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의 구성

-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의 탄생

- 『뉴욕커』 1963년 2월호와 3월호에 연재

『전반적인 보고: 예루살렘의 아이히만』

- 1963년 5월에 단행본으로 출판(수정증보판은 1964년에 출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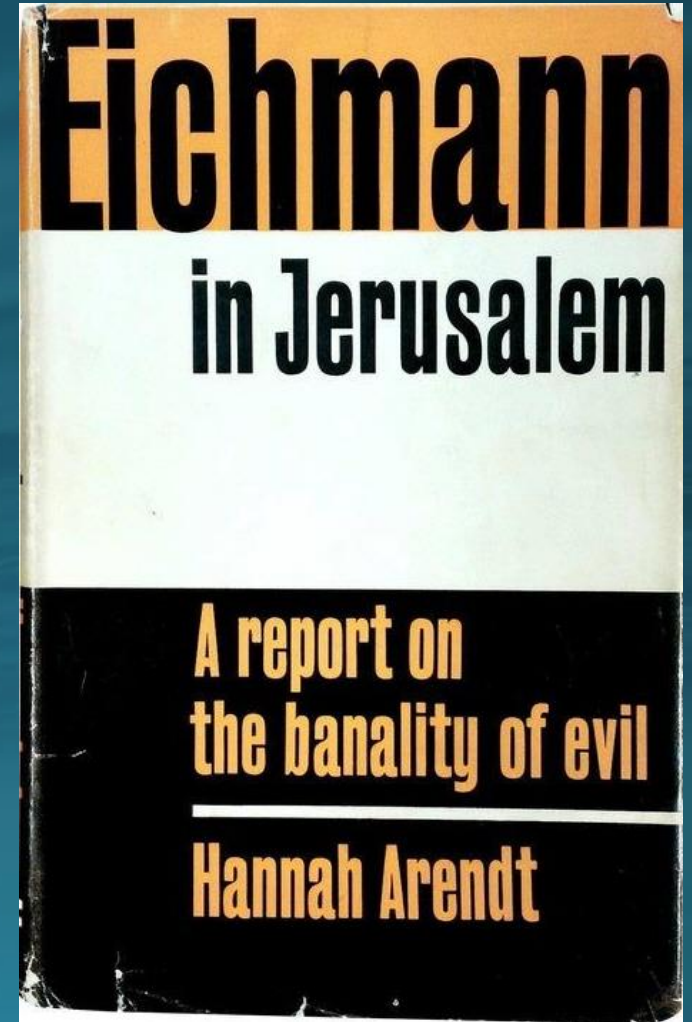
-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의 참고문헌

- 언론에 배부된 재판 관련 기록물

재판속기록, 아이히만의 심문 조사서, 검찰 문건, 증인들의 진술서, 아이히만의 타이프 원고 (주제: 유대인 문제 및 1933년과 1945년 사이의 기간에 있었던 이 문제의 해결책과 관련된 독일제국의 국가사회주의 정부의 조치들에 대한 나의 코멘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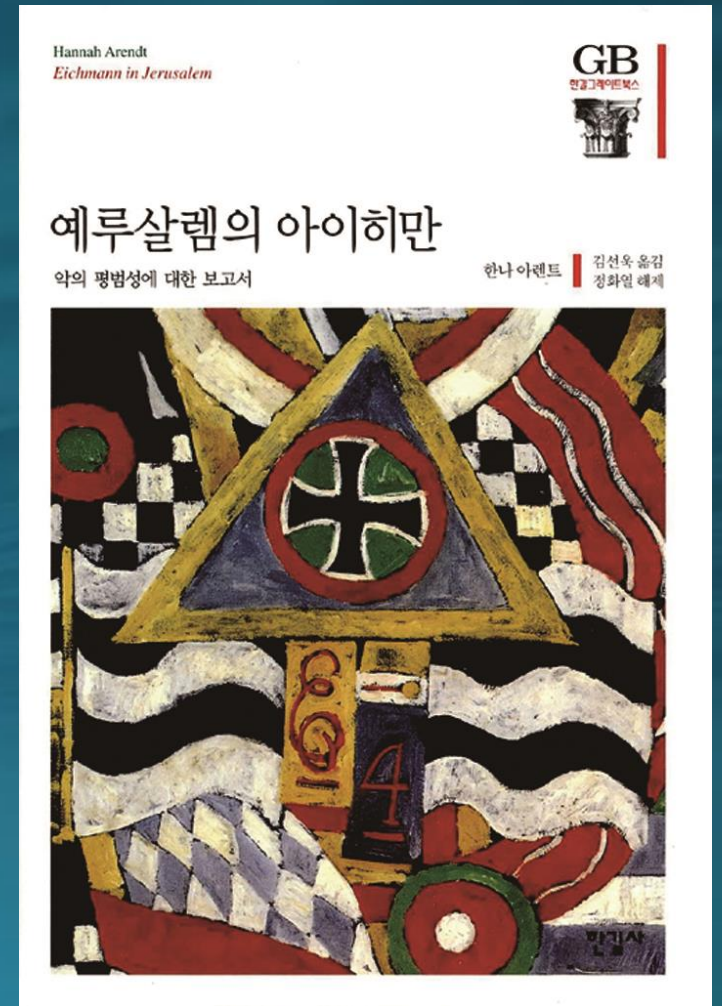
- 주요 서적

로베르트 펜도르프, 『살인자와 피살자』·『아이히만과 제3제국의 유대인 정책』 / 하리 물리슈, 『형사사건 40/61』 / T. C. 페스트, 『제3제국의 모습』 / 게랄트 라이트링거, 『최종 해결책』 / 라울 힐베르크, 『유럽 유대인의 파괴』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의 구성

- 독자들에게 드리는 말
- 제1장 정의의 집 // 제2장 피고 // 제3장 유대인 문제 전문가
- 제4장 첫 번째 해결책: 추방
- 제5장 두 번째 해결책: 수용
- 제6장 최종 해결책: 학살
- 제7장 반제회의, 혹은 본디오 빌라도
- 제8장 법을 준수하는 시민의 의무
- 제9장 제국으로부터의 이송: 독일, 오스트리아 및 보호국
- 제10장 서유럽으로부터의 이송: 프랑스, 벨기에, 네덜란드, 덴마크, 이탈리아
- 제11장 발칸 지역으로부터의 이송: 유고슬라비아, 불가리아, 그리스, 루마니아
- 제12장 중부 유럽으로부터의 이송: 헝가리, 슬로바키아
- 제13장 동부의 학살센터들
- 제14장 증거와 증언 // 제15장 판결, 항소, 처형
- 에필로그
- 후기



한나 아렌트가 직면한 곤혹스러움

- 명백한 극악을 정의롭게 심판하는 일이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인가?

• “정의의 집(Beth Hamishpath)”은 정의로웠는가?

“요약하면 예루살렘 재판의 실패는 뉘른베르크 재판소 설립 이래로 폭넓게 논의되고 또 충분히 인식된 세 가지 근본적인 문제들 모두를 파악하지 못한 데 놓여 있다. 그것은 승자의 법정의 훼손된 정의의 문제, ‘인류에 대한 범죄’의 타당한 정의, 그리고 이러한 범죄를 저지른 새로운 범죄자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었다.”(376쪽)



아돌프 아이히만에 대한 인상

- 1960년 5월 11일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체포
- 9일 후에 이스라엘로 압송
- 1961년 4월 11일에 예루살렘 지방법원으로 이송
- 15가지 죄목으로 기소
- 아이히만은 모든 기소항목에 대해 무죄를 주장

“신 앞에서는 유죄라고 느끼지만 법 앞에서는 아니다”

“무엇보다도 살인죄에 대한 기소는 잘못되었다는 것이다. “유대인을 죽이는 일에 나는 아무런 관계도 없다. 나는 유대인이나 비유대인을 결코 죽인 적이 없다. 이 문제에 대해 말하자면 나는 어떠한 인간도 죽인 적이 없다. 나는 유대인이든 비유대인이든 죽이라는 명령을 내린 적이 없다. 여하튼 난 그런 일을 하지 않았다. 그 일은 그냥 일어났던 일이다. 나는 단 한 번도 그 일을 해야 한 적이 없었다.” 그는 계속해서 자신은 단지 유대인 멸절을 ‘교사’했다는 이유에서만 기소될 수 있고...””(74-75쪽)



아돌프 아이히만에 대한 인상

“그렇다면 그가 살인의 방조자로 기소되었다면 유죄라고 인정했을까? 아마 인정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중요한 조건들을 달았을 것이다. 자신이 한 일은 회고를 할 때에만 범죄일 뿐, 자기는 언제나 법률을 준수하는 시민이었다고 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가 최선을 다해 수행한 히틀러의 명령은 제3제국에서는 ‘법의 효력’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이다. 오늘날 아이히만에게 그가 달리 행동할 수 있었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단적으로 그 당시 상황이 어땠는지 알지 못했거나 아니면 잊어버린 것이다.”(77쪽)

“그의 양심에 대해 그는 자신이 명령받은 일을 하지 않았다면 양심의 가책을 받았을 거라는 점을 완전히 기억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 일이란 수백만 명의 남녀와 아이들을 상당한 열정과 가장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죽음으로 보내는 것이었다. 분명히 이것은 받아들이기 힘든 일이다.”(78-79쪽)

- 정신 감정 정상, 반유대주의자도 아니었음, 오히려 유대인과 개인적인 교류도 있었음

아돌프 아이히만의 행적

- 1933년 뉘른베르크법 공포 (유대인 인종차별의 합법화)

유대인의 독일 국적 박탈, 유대인과 독일인과의 성관계/결혼 금지, 유대인의 공무담임권 박탈

- 1938년 크리스탈나흐트

- 첫 번째 해결책: 추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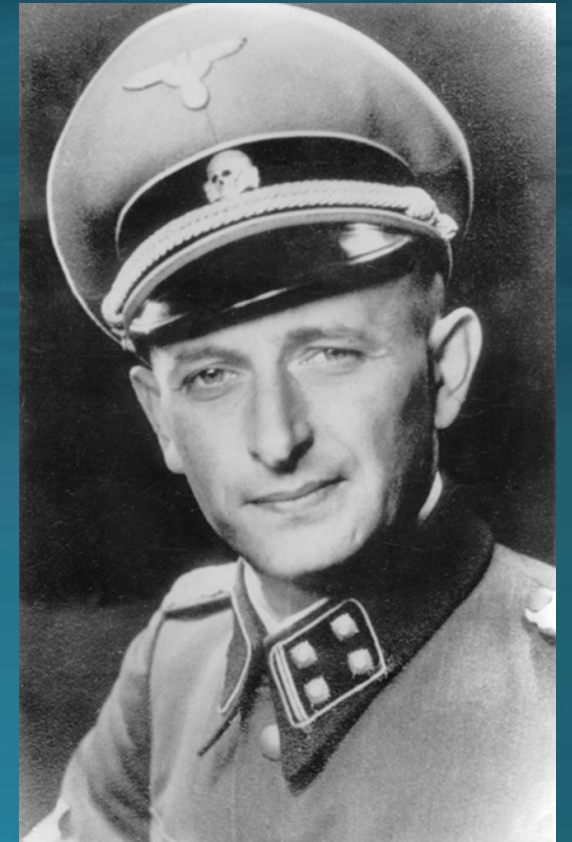
- 유대인 추방 과정에서 뛰어난 조직능력과 협상능력으로 두각을 드러냄

- 이때의 증언 과정에서 유대인 조력자들의 활동이 드러남

- 1940년 두 번째 해결책: 수용(유대인의 마다가스카르 소개 계획)

- 1941년 최종 해결책: 학살

- 폴란드 서부 지역의 학살센터 바르테가우 방문



아돌프 아이히만의 행적

- 폴란드 서부 지역의 학살센터 바르테가우 방문
 - 이동용 가스차량을 사용한 유대인 학살 목격

“제가 평생 동안 본 것 중 가장 끔직한 광경을 보았습니다. 그 트럭은 넓게 파인 구덩이 앞으로 가서 문을 열었고 그리로 시신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마치 그들이 살아 있는 것처럼 그들의 사지는 아주 유연했습니다. 그들은 구덩이 속으로 던져졌고, 한 민간인이 치과용 집게를 가지고 이빨을 뽑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떠났습니다. 제 차에 올라타서는 더 이상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 저는 몇 시간 동안 운전기사 옆에 앉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거기서 저는 충분히 보았습니다. 저는 두손두발 다 들었습니다. 저는 흰옷을 입은 한 의사가 제게 구멍을 통해 트럭 안을 들여다보라고 한 것을 기억할 뿐입니다. 아직도 그들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곳을 떠나야 했습니다.”(153쪽)

아돌프 아이히만의 행적

• 양심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문제는 양심을 어떻게 극복하는가라는 것이 아니라 모든 정상적인 사람들이 육체적 고통을 당하는 것을 보는 데서 느끼게 되는 동물적인 동정심을 어떻게 극복하는가 하는 것이었다. 그것은 이러한 본능을 뒤집는 것으로, 말하자면 자기 자신을 향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내가 사람들에게 얼마나 끔찍한 일을 하고 있는가, 라고 말하는 대신, 나의 의무를 이행하는 가운데 내가 얼마나 끔찍한 일을 목격해야만 하는가, 내 어깨에 놓인 임무가 얼마나 막중한가, 라고 살인자들은 말할 수 있게 되었다. 이 가운데 최고의 것은 히틀러가 적절히 예견한 것처럼 전쟁이라는 단순한 사실이었다.”(174쪽)

“기만과 은폐를 교묘하게 고안된 다양한 ‘언어규칙’ 가운데 이처럼 히틀러가 첫 번째 전쟁을 벌이는 데 살인자들의 정신 상태에 작용한 것보다도 더 결정적인 효과를 발휘한 것은 없었다. 여기서 ‘살인’이라는 말 대신 ‘안락사 제공’이라는 표현이 사용되었다.”(177쪽)

아돌프 아이히만의 행적

• 양심 문제 해결의 결정적 계기: 1942년 반제회의

“회담은 한 시간 내지 한 시간 반밖에 진행되지 않았고, 이어 음료가 제공되었으며, 모두 점심식사를 했다. 그들 간에 필요한 개인적 접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편안한 작은 사교모임’이었다. 이것은 이처럼 많은 ‘고위직’과 사교 모임을 가져본 적이 없는 아이히만에게는 아주 중요한 기회였다. 그는 참석자들 가운데 직책과 사회적 지위 면에서 최하위였다.”(183쪽)

“그는 히틀러뿐만 아니라, 하이드리히와 ‘스핑크’ 뮐러뿐만 아니라, 친위대나 당뿐만 아니라, 착하고 연륜 있는 엘리트 공무원들이 이 ‘피투성이의’ 문제에서 주도권을 갖는 명예를 얻기 위해 서로 경쟁하고 싸우는 것을 자신의 눈으로 보고 자신의 귀로 들을 수 있었다. “당시 나는 일종의 본디오 빌라도의 감정과 같은 것을 느꼈다. 나는 모든 죄로부터 자유롭게 느꼈기 때문이다.””(183-184쪽)

“아이히만이 말한 것처럼 자기 자신의 양심을 무마시킨 가장 유력한 요소는 실제로 최종 해결책에 반대한 사람을 한 명도, 단 한 명도 볼 수가 없었다는 단순한 사실이었다.”(186쪽)

아돌프 아이히만의 행적

• 당시 독일 국민의 양심은?

“우리는 여기서 독일에서의 이른바 ‘내면적 이주’(inner emigration, 제3제국에서 종종 지위를 가졌던 사람들, 심지어 고위직을 가진 자들, 그리고 전쟁이 끝난 뒤 자기 자신과 세계에 대해 자기들은 정권에 대해 항상 ‘내면적으로 반대를’ 했다고 말한 사람들)에 대해 단지 스쳐 지나가면서 언급하도록 하겠다. 여기서 문제는 그들이 진실을 말하고 있는지의 여부가 아니다. 초점은 오히려 히틀러 정부의 비밀에 싸인 분위기 속에서 어떠한 비밀도 그 같은 ‘내적 반대’보다는 지켜내기가 더 수월했다는 것이다. 제3제국에서 살면서 나치스처럼 행동하지 않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전혀 밖으로 노출되지 않는 것뿐이다. ‘내면적 이주자’란 단지 ‘맹목적으로 신봉하는 대중들 한가운데에서 자기 자신의 민족들 중에 버려진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만을 가리킨다. 왜냐하면 반대란 조직이 존재하지 않는 곳에서는 사실상 ‘전적으로 무의미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외적 냉대’ 속에서 12년 동안 그렇게 산 독일인들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그 수는 무의미할 정도였고 심지어 레지스탕스 요원들도 그 수가 무의미하다고 생각했다.”(198-199쪽)

아돌프 아이히만의 행적

• 당시 독일 국민 전반의 양심은?

“오늘날 독일에서는 ‘저명한’ 유대인에 대한 이러한 생각이 아직도 잊히지 않고 있다. 참전용사들과 다른 특권 계층들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언급되지 않지만, 다른 모든 사람들의 죽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유명한’ 유대인의 운명이 애도되고 있다. 어린 한스 콘이 비록 천재는 아니지만 그를 전쟁이 끝날 무렵 살해한 것은 더욱 큰 죄악임을 깨닫지 못한 채 독일이 아이슈타인을 이주시킨 것을 아직도 공공연히 후회하는 사람들이 특히 문화적 엘리트들 가운데 적지 않다.”(207-208쪽)

새로운 유형의 범죄를 어떻게 정의롭게 심판할 것인가?

“그는 경찰과 법정에서 계속 반복해서 말한 것처럼 의무를 준수했다. 그는 명령을 지켰을 뿐만 아니라 법을 지키기도 했다.”(209쪽)

“문명화된 나라들의 법에서는 비록 인간의 자연적 욕구와 성향이 때때로 살인의 충동이라 하더라도 양심의 소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살인하지 말라”고 말한다고 추정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히틀러의 땅의 법은 비록 살인이 대부분의 사람들의 정상적인 욕구와 성향에 반한다는 것을 대량학살 조직자가 아주 잘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양심의 소리가 모든 사람에게 “너는 살인할지어다”라고 말하기를 요구한다. 제3제국의 악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악을 인식하게 되는 특질(유혹이라는 특질)을 상실했다.”(226쪽)

“아이히만의 경우 성가신 점은 바로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그와 같다는 점,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이 도착적이지도 가학적이지도 않다는 점, 즉 그들은 아주 그리고 무서울 만큼 정상적이었고 또 지금도 여전히 정상적이라는 점이다.”(379쪽)

새로운 유형의 범죄를 어떻게 정의롭게 심판할 것인가?

“아이히만 재판에서 논란이 된 보다 큰 문제들 가운데 가장 우선적인 것은 잘못을 행하려는 의도가 범죄를 구성하는 데 필수적이라는, 모든 현대 법체계에서 통용되는 가정이었다. 문명화된 사법권이 이처럼 주관적 요소에 대한 고려를 하는 것보다 더 자부심을 가진 것은 없었다. 이러한 의도가 결여된 곳에서는, 어떤 이유에서든 심지어 도덕적 불건전성의 이유에서라도 하더라도 옳고 그른 것을 구별하는 능력이 손상된 곳에서는, 우리는 어떤 범죄가 저질러졌다고 느끼지 않는다. “커다란 범죄는 자연을 거스르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지구가 복수를 부르짖는다. 악은 자연적 조화를 훼손하는데, 이는 오직 보복을 통해서만 회복될 수 있다. 부당한 일을 당한 집단에게 그 범죄자를 처벌해야 한다는 도덕 명령은 의무가 된다”는 명제들을 우리는 거부하며, 또한 야만적인 것으로 간주한다. 그런데 아이히만이 일단 재판받으러 온 것은 바로 이처럼 오랫동안 잊혀진 주장들에게 근거한 것이었고, 따라서 이러한 명제들이 사실상 사형판결을 내리게 된 최고의 정당화였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고 나는 생각한다.”(379-380쪽)

새로운 유형의 범죄를 어떻게 정의롭게 심판할 것인가?

- “나는 재판에 직면한 한 사람이 주연한 현상을 엄격한 사실적 차원에서만 지적하면서 악의 평범성에 대해 말한 것이다. 아이히만은 이 아고도, 맥베스도 아니었고, 또한 리처드 3세처럼 “악인임을 입증하기로” 결심하는 것은 그의 마음과는 동떨어져 있는 일이었다. 자신의 개인적인 발전을 도모하는 데 각별히 근면한 것을 제외하고는 그는 어떠한 동기도 갖고 있지 않았다. 그리고 이러한 근면성 자체는 결코 범죄적인 것이 아니다. 그는 상관을 죽여 그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살인을 범하려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 문제를 흔히 하는 말로 하면 그는 단지 자기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결코 깨닫지 못한 것이다. 그로 하여금 그 시대의 엄청난 범죄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되게 한 것은 (결코 어리석음과 동일한 것이 아닌) 순전한 무사유 (sheer thoughtlessness)였다.”(391쪽)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을 선정한 이유

- 새로운 사회의 도래

- 인간의 사고력을 기계가 대신하는 사회

인간성/인간됨의 가치가 더 중요해짐, 특히 창조성과 공감 능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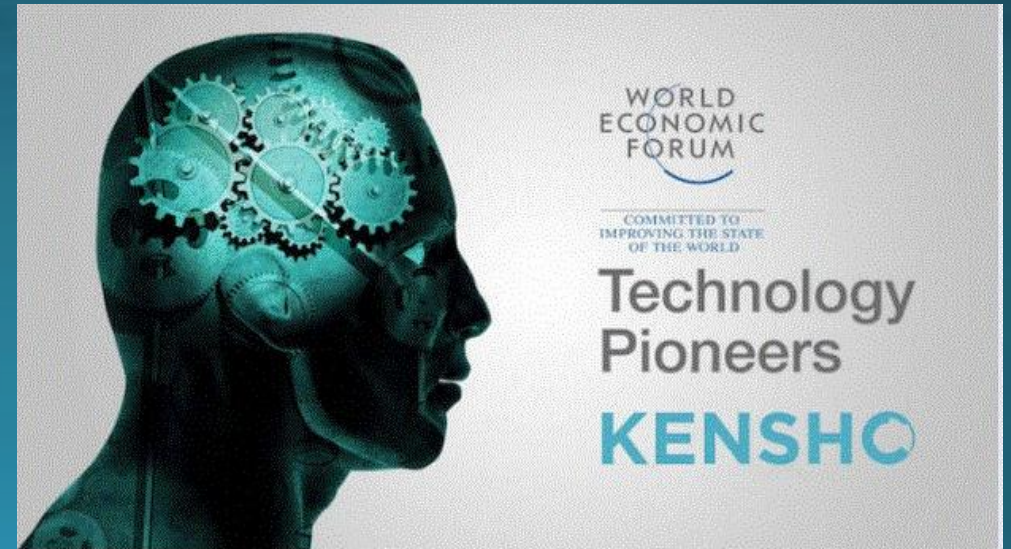
아이러니 한 사실은 사회 변혁의 여파로 공감 능력의 저하 가속화

자기중심적인 일상에 급격히 매몰되는 우리의 삶

- 현실공간 < 가상공간: 가상공간 비중의 급격한 확대

가상 공간 = 훨씬 더 유리한 통제 조건

=> 나의 사유 능력, 공감 능력의 실상은 어떠한가?



거기 아무도 없나요 (지현아 作)

거기 아무도 없나요?
거기 아마도 없나요?

무서워요
거기 누구 없나요

여긴 지옥인데
거기 누구 없나요

아무리 애타게 불러도
아무도 저 문 열어주지 않네요
거기 아무도 없나요

제발 우리의 신음소리
들어주세요
짓밟히는 우리의 아픔들
들어주세요
거기 아무도 없나요

사람이 죽어요
내 친구도 죽어가요
불러도 불러도 왜 대답 없나요
거기 정말 아무도 없나요

